

# 국어 영역

## ■ 화법

### 1. 발표 계획의 반영 여부 파악 정답 ③

질문을 통해 청중이 발표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부분은 지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① 발표자는 그림 자료, 사진 자료 등과 같은 시각 자료를 보여 주며 청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 ② 발표자는 '아이스브레이킹은 대화나 회의의 시작 전에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이를 통해 대화나 회의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말하기 전략입니다.'라고 화제의 의의를 요약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 ④ 발표자는 아이스브레이킹 방법 중 하나인 '공통점 찾기'를 청중들과 직접 해 보면서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⑤ 발표자는 청중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용어인 '아이스브레이킹'의 어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청중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다.

### 2. 발표 내용의 이해 정답 ②

아이스브레이킹의 목적은 회의나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화제에 대한 상대방의 흥미를 유발하는 것은 아이스브레이킹의 목적과 관련이 없다.

- ① 1문단을 통해, 아이스브레이킹이란 대화나 회의에서 본격적인 주제를 말하기에 앞서, 딱딱하고 긴장된 분위기를 푸는 과정을 일컫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3문단을 통해, '공통점 찾기'는 짧은 시간 내에 모둠원 간의 친밀도를 올려 주고, 상호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방법임을 알 수 있다.
- ④, ⑤ 4문단을 통해, 아이스브레이킹을 실시할 때에는 구성원들의 특성에 맞고 구성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아야 하며, 그 시간이 10분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3. 입론의 전개 방식 이해 정답 ⑤

찬성 측은 상대측 주장인 토너먼트 방식이 대회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한 후 자신의 주장인 리그 방식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반대 측은 상대측 주장인 리그 방식이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한 후 자신의 주장인 토너먼트 방식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양측 모두 상대측 주장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한 후 자신의 주장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을 부각한다고 할 수 있다.

- ① 양측 모두 상대측 주장에 담겨 있는 전제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있지 않다.
- ② 양측 모두 상대측 주장이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지 않다.
- ③ 양측 모두 상대측의 주장과 자신의 주장을 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양측 모두 상대측 주장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 4. 반대 신문의 의도 파악 정답 ③

[B]에서 '찬성 2'는 학교에서 농구나 배구 대회를 개최해 주었으면 하는 학생이 다수 있다는 상대측의 입론을 듣고 반대 신문을 통해 그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묻고 있다. 이는 상대측 주장의 근거가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다.

- ①, ② [A]는 상대측 주장의 근거가 과장되었다고 지적하거나 대회의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믿을 만한 것인지를 묻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라 상대측의 전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질문이다.
- ④ 반대 측은 입론에 전문가의 설명은 인용되지 않았으며, [B]가 틀린 전제를 바로잡기 위한 질문도 아니다.
- ⑤ [A]는 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다.

### 5. 토론 내용의 분석 정답 ③

찬성 측은 축구 대회를 리그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리그 방식으로 경기를 하면 모든 학급이 대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경기에 참여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반대 측은 학급의 참여도를 근거로 토너먼트 방식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 ① 찬성 측은 토너먼트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회의 신뢰도 문제를 지적하며 리그 방식에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 ② 찬성 측은 토너먼트 방식에서는 행운이 작용하면 실력이 부족한 팀이 우승할 수도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토너먼트 방식이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 ④, ⑤ 반대 측은 리그 방식으로 대회를 진행하면 토너먼트 방식으로 대회를 진행할 때에 비해 경기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다양한 활동의 선택 기회를 제공할 수 없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토너먼트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 ■ 작문

### 6. 내용 조직 구상의 반영 순서 파악 정답 ①

'요즈음 인포그래픽이라는 말을 여러 매체에서 듣게 되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에서 ㉠를, '인포그래픽은 정보를 뜻하는 인포메이션의 '인포'와 '그래픽'이 합쳐진 말로, 정보를 그래픽 형태로 나타낸 것을 일컫는다.'에서 ㉡를, '인포그래픽이 요즈음 각광받는 이유는 우리가 방대한 양의 정보를 찾는 것은 가능해도 그 핵심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이다'에서 ㉢를, '인포그래픽은 ~ 핵심 정보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유용성이 있다. 이러한 인포그래픽은 광고, 통계 자료, 학술 저서 등에 폭 넓게 사용되고 있다.'에서 ㉣를 확인할 수 있다.

### 7.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 파악 정답 ②

(가)와 (나)를 비교하여 보면 줄글로 쓰인 (가)와 달리 인포그래픽의 시각화를 거친 (나)에서는 커피의 여러 종류가 각각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핵심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① (가)와 (나)의 공통점은 커피의 종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자료의 충분한 수집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③ (가)를 활용하여 (나)를 제작한 것은 맞지만 (가)에서 제공된 정보 외에 추가적인 정보가 더 들어간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가)보다 (나)가 쉽게 이해된다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이를 통해 자료의 취사선택을 강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⑤ (가)보다 (나)가 제작하기 어려운 것은 맞지만 그것이 인포그래픽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 8. 작문 내용의 적절성 파악 정답 ④

④의 경우 '몸에 맞는 옷을 입는 것'에 비유하여 전달하려는 정보에 가장 적합한 유형의 인포그래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고, 핵심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한다는 인포그래픽의 목적을 언급하였으므로 <보기>에 조건에 부합한다.

- ⑤ 표현하는 과정에서 내용과 어울리는 적절한 비유를 사용하고 있지만 정보의 품질에 따라 인포그래픽이 달라진다는 내용은 <보기>의 조건과 관련이 없다.

### 9. 내용 생성의 적절성 파악 정답 ②

매끄러운 몸매와 아름다운 깃털은 비둘기의 내세울 만한 장점으로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서 비둘기가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이유를 강조하지는 않았다.

- ① 사람들에게 사랑받던 비둘기가 지금은 천덕꾸러기가 되어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다고 하며 연민의 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비둘기가 귀소 본능이 뛰어나다는 점과 목적지를 정확히 찾는 능력을, 비둘기가 장거리를 비행할 수 있다는 점과 끈기라는 가치를 연결하고 있다.
- ④ 비둘기가 모여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정겹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비둘기가 도시의 환경을 더럽힌다고 싫어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자연을 고려하지 않은 인간 중심의 생각'이라고 하며 비판하고 있다.

### 10. 고쳐쓰기의 적절성 파악 정답 ④

'싫어하는'은 해당 문맥에 쓰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히려 '싫어한'으로 바꾸게 되면 과거의 의미를 지니게 되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① ㉠의 경우 부사격 조사가 아니라 관형격 조사가 붙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평화애'를 '평화'로 고쳐야 한다.
- ② '선발'은 '많은 가운데서 골라 뽑음'의 의미이므로 '지정'(관공서, 학교, 회사, 개인 등이 어떤 것에 특정한 자격을 줌)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③ '그런데'는 전환의 접속어이므로 병렬적으로 연결하는 '그리고'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⑤ ㉡은 문단의 전체적인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다.

### 11. 중세 국어와 근대 국어의 표기법 이해와 적용 정답 ②

<보기>의 탐구 자료에서 중세 국어 '말썸'은 '말썹'이 조사 '이'와 결합한 것으로, 받침이 있는 체언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가 결합하였기 때문에 단어의 기본 형태를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것이다.

- ① 중세 국어 '기픈'은 용언의 어간 '깊-'과 어미 '-은'이 결합한 것으로, 받침이 있는 용언의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였기 때문에 이어 적기를 한 표기에 해당한다.
- ③ 근대 국어에서는 이어 적기와 거듭 적기, 끊어 적기의 표기가 모두 사용되었으므로, 중세 국어 '쁘들'은 '쁘들(이어 적기) / 뜯을(끊어 적기) / 뜯들(거듭 적기)'로 표기하는 것이 가능했다.
- ④ 근대 국어 '깊은'은 단어의 기본 형태를 밝혀 적는 끊어 적기를 한 것이다.
- ⑤ 근대 국어 '말썸'은 '말썹'이 조사 '이'와 결합한 것으로, 거듭 적기로 표기한 말에 해당한다. 이는 이어 적기에서 끊어 적기 방식으로 바뀌어 가는 과도기적 표기에 해당한다.

12. 단어의 구조 이해

정답 ②

‘탐스럽다’는 ‘탐’이라는 어근에 ‘-스럽다’라는 접사가 결합한 복합어이다. 하지만 ‘스친다’는 ‘스치-’라는 용언의 어간에 ‘-다’이라는 선어말 어미와 ‘-다’라는 어말 어미가 결합한 단일어이다.

- ① ‘바람’은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꽃봉오리’는 ‘꽃’이라는 어근과 ‘봉오리’라는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 ③ ㉠의 ‘이’와 ㉡의 ‘을’은 모두 조사로서, 자립할 수 있는 말의 뒤에 붙어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말이다.
- ④ ㉢의 ‘헛-’은 ‘기침’이라는 명사와 결합하였으며 ㉣의 ‘헛-’은 ‘디디다’라는 동사와 결합하였으므로 ‘헛-’이 두 가지 이상의 품사의 어근과 결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큰아버지’는 ‘큰’이라는 어근과 ‘아버지’라는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이며, ‘강물’은 ‘강’이라는 어근과 ‘물’이라는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13. 합성어의 구조 이해

정답 ①

‘새해’는 ‘새’라는 관형사에 ‘해’라는 명사가 결합하여 합성 명사가 된 경우이므로 명사와 명사로 이루어졌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② ‘덮다’라는 동사의 어간 ‘덮-’과 ‘밥’이라는 명사로 이루어진 단어이므로 적절하다.
- ③ ‘편’이라는 명사와 ‘들다’라는 동사로 이루어진 단어이므로 적절하다.
- ④ ‘살랑’이라는 부사가 반복하여 이루어진 단어이므로 적절하다.
- ⑤ ‘남’이라는 명사와 ‘다르다’라는 형용사로 이루어진 단어이므로 적절하다.

14. 음운 변동의 이해와 적용

정답 ①

‘숨이불’이 [숨니불]로 발음되는 것은 비음화가 아니라 음운의 첨가에 해당한다. 즉 합성어 ‘숨이불’의 앞 단어 ‘숨’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 ‘이불’의 첫음절이 ‘이’이기 때문에 ‘니’ 음을 첨가하여 ‘니’로 발음된 사례이다.

- ② ‘ㄹ’의 앞뒤에 오는 ‘ㄴ’이 [리]로 발음되는 현상이니 유음화에 해당한다.
- ③ ‘돋’의 종성 ‘ㄷ’이 뒤 음절에 나오는 ‘ㅣ’의 영향을 받아 [ㅈ]으로 발음되고 있으므로 구개음화에 해당한다.
- ④ ‘부엌문’은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부엌문]으로 발음되고 이후 비음화 현상이 일어나 [부엌문]으로 발음된다.
- ⑤ ‘낮잠’의 ‘낮’이 [남]으로 발음되는 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며, ‘잠’이 [잠]으로 발음되는 것은 된소리되기에 해당한다.

15. 안긴문장, 안은문장에 대한 이해

정답 ④

ㄹ의 전체 주어는 ‘것은’, 서술어는 ‘사실이다’이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고민을 하는’이 ‘것은’을 수식하는 관형절로 안겨 있다. ‘청소년들이’는 안긴문장의 주어에 해당한다.

- ① ㄱ은 ‘그가 우리를 사랑했음’이라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안고 있다.
- ② ㄴ은 ‘소리도 없이’라는 부사절을 안은 문장이다. 안긴문장의 주어는 ‘소리도’이다.
- ③ ㄷ은 ‘활자가 너무 작다’를 서술절로 안은 문장으로, 안은문장의 주어는 ‘책은’이다.
- ⑤ ㄹ은 ‘영화를 좋아한다’가 인용절로 안겨 있으며, 인용절의 주어는 ‘철수가’이지만 생략되었다.

[16~20] (과학)

「귀의 구조와 기능」

귀는 겉귀와 가운데귀, 속귀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겉귀는 음파를 모아 고막으로 보내는 역할을 담당하며, 가운데귀는 겉귀에서 전달된 음파를 증폭하여 속귀로 보낸다. 속귀는 달팽이관과 반고리관, 타원주머니, 둥근주머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달팽이관에서는 청각 기능을 담당하고, 반고리관과 타원주머니, 둥근주머니에서는 평형 기능을 담당하여 우리 몸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16. 내용의 사실적 이해

정답 ②

속귀에 있는 반고리관, 타원주머니, 둥근주머니는 평형 기능을 담당하여 우리 몸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 ① 겉귀는 귓바퀴와 귓속 통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파를 모아 가운데귀로 보내는 역할을 담당한다. 고막은 겉귀와 가운데귀를 분리하는 얇은 막 조직이다.
- ③ 가운데귀는 겉귀에서 전달된 음파를 증폭하여 속귀로 전달한다. 음파의 진동에 의해 림프액이 진동하여 전기 신호가 만들어지는 곳은 속귀이다.
- ④ 소리를 들으면 음파의 진동에 의해 코르티 기관의 털세포 끝에 나 있는 돌기가 덮개막과 부딪치면서 전기 신호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몸을 움직이면 반고리관과 타원주머니, 둥근주머니 안의 젤라틴성 물질에 의해 털이 구부러지게 되고, 이로 인해 전기 신호가 발생하거나 전기 신호의 비율이 변하게 된다. 따라서 소리를 듣거나 몸을 움직일 때마다 귀 내부의 털이 림프액을 자극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17. 구체적 사례에 적용

정답 ①

5문단을 통해 지나치게 큰 소리에 자주, 오랫동안 노출되면, 코르티 기관의 털세포가 손상되어 귀가 울리고 ‘윙’ 하는 소리가 들리는 이명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점과 손상되거나 파괴된 털세포는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기>에 제시된 철수의 증세는 이명 현상에 해당하고, 이명 현상은 털세포가 손상될 때 나타나는 증세이다. 따라서 철수가 앞으로 시끄러운 소리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더라도 손상된 털세포는 회복되지 않는다.

- ② 고막으로 전달되는 소리가 커질수록 압력파도 커지게 되며 달팽이관 내의 림프액의 진동 역시 심해진다. 따라서 조용한 클래식 음악보다 소리가 큰 록 음악을 들으면 압력파가 커지게 되어 달팽이관 내의 림프액의 진동도 심해질 것이다.
- ③ 이명 현상이 나타난 후에도 계속해서 큰 소리에 노출되면 털세포가 닳게 되어 청력을 잃게 된다.
- ④ 지나치게 큰 소리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이명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본문의 내용을 봤을 때, 몇 개월 동안 이어폰으로 록 음악을 들은 것이 이명 현상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⑤ 지나치게 큰 소리에 자주, 오랫동안 노출되면 털세포가 덮개막과 부딪치는 횟수가 과하게 늘어나 털세포가 손상될 수 있다.

18. 글의 세부 내용 이해

정답 ①

음파는 겉귀의 귓바퀴와 귓속 통로에 의해 모여 고막으로 전달되고, 이 음파는 고막을 통과한 후 가운데귀의 망치뼈, 모루뼈, 등자뼈를 지나면서 증폭되어 타원창으로 보내진다. 이 증폭된 진동은 림프액으로 가득 찬 달팽이관에서 액체의 파동으로 바뀌어 위 통

로를 거쳐 코르티 기관의 끝에 도달하고, 다시 아래 통로로 보내져 점차 사라진다. 이와 같은 귀에서 음파가 전달되는 과정에서의 음파의 크기 변화를 제대로 나타낸 그래프는 ①이다.

19. 주요 개념 이해의 적절성 파악

정답 ③

8문단을 통해 머리를 움직일 때마다 타원주머니와 둥근주머니의 전기 신호의 비율이 변화되고, 그 결과 타원주머니는 몸의 수평 운동을, 둥근주머니는 몸의 수직 운동을 감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개의 반고리관은 머리의 회전과 각도, 이동 속도의 변화를 감지한다.

- ① 7문단의 ‘3개의 고리가 모든 방향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② 8문단의 ‘머리를 움직이면 젤라틴성 물질이 털을 특정 방향으로 구부러지게 하여 뇌로 전달되는 전기 신호의 비율을 변화시킨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④ 7문단의 ‘털은 팽대정이라고 하는 젤라틴성 물질 속으로 돌출되어 있다.’와 8문단의 ‘두 주머니 안에 있는 털세포의 털은 젤라틴성 물질 속으로 돌출되어 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⑤ ㉠과 ㉡는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20. 사전적 의미의 이해

정답 ①

㉢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나뉘어 떨어짐. 또는 그렇게 되게 함.’이다. ‘여러 부분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을 그 낱말로 나눔.’의 의미를 지닌 단어는 ‘분해’이다.

[21~26] (고전 소설+현대 소설)

(가) 문학에서의 환상

이 글은 문학에서의 환상의 기능, 고전 소설에서 환상의 구현 양상 및 현대 소설 「캐비닛」에 사용된 환상적 상상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문학은 환상적 상상력을 통해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고 현실 세계에 대한 성찰을 가능하게 하며 이러한 환상적 상상력은 신화와 민담 등에서부터 현대 소설에까지 나타난다. 고전 소설에서는 현실계와 환상계의 상호 간섭, 천인적강 모티프 등의 환상적 상상력을 통해 현실을 드러낸다. 한편 현대 소설 「캐비닛」에서는 비현실적인 인물들을 등장시켜 현대 사회의 삶의 조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나) 김시습, 「만복사저포기」

이 작품은 명혼 소설이자 전기 소설로, 불우한 서생인 양생이 한을 품고 죽은 여인을 만나 생사를 초월한 사랑을 나누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야기 전개는 현실계와 비현실계의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현실계의 존재인 양생이 비현실계의 존재인 여인과 사랑을 나누고, 서로 두터운 정과 신뢰를 보이는 모습을 통해 생사를 초월한 진실한 사랑을 보여 주고 있는 작품이다.

(다) 김연수, 「캐비닛」

이 작품은 보통 인간과 다른 특성을 지닌 인간인 ‘심토머’에 대한 이야기이다. 제시된 본문은 ‘토포리’라는 소재목이 달린 일화의 일부로, 길게는 2년까지 수면 상태를 유지하는 ‘토포리’를 통해 시간과 노동이 물질적 가치로 환산되어 바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시사하고 있다.

21. 세부 정보에 대한 이해

정답 ⑤

(가)의 2문단에서 현실계와 환상계가 상호 간섭적으로 나타나는 고전 소설의 특징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환상적 상상력은 산자와 죽은자 간의 교류, 현실 인물의 이계 탐색, 친인적강의 모티프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때 환상계가 이상향으로 부각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원적 구조로서 현실계와 환상계가 존재하며 그 두 세계가 서로 교유한다는 것만 서술되어 있다.

- ① (가)의 1문단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가)의 2문단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가)의 3문단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가)의 4문단을 통해 알 수 있다.

22. 다른 작품과의 비교 감상

정답 ③

(나)의 개령동 집에서의 생활은 여인과 양생의 만남과 사랑을 보여 주는 것으로, 환상적 세계를 통해 현실의 문제를 부각하는 장치라 볼 수 있다. 여인은 전쟁으로 인해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은 인물인데, 이러한 환상적 존재를 내세움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방해하고 억압하는 현실의 문제를 부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개령동 집에서의 생활이 백성을 억압하는 부정적 권력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 ① 꿈의 내용과 선녀의 말을 통해 부인이 낳은 아이는 지상으로 내려온 천상계의 존재인 자미원 장성임을 알 수 있다.
② 양생과 여인의 만남은 산자와 죽은자가 서로 만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두 존재의 욕망(사랑)을 달성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④ (나)에서 여인은 이미 죽은 존재이며, 「유충렬전」에서 청룡과 선녀는 천상계의 존재이므로 둘 모두 비현실적 세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나)에서는 개령동 장면의 산자와 죽은자의 교류를 통해, 「유충렬전」에서는 꿈에 나타난 천상적 존재를 통해 현실계와 환상계가 간섭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23. 외적 증거를 바탕으로 한 작품의 이해

정답 ①

환상적 상상력은 현실 세계를 뒤집고 변형시켜 새로운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하는 기능을 한다. 그렇지만 (나)에서 여인의 부모와 양생이 대화하는 장면에서는 여인과 관련된 과거의 일이 제시될 뿐 환상적 상상력은 나타나지 않으며, 현실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 ② '양생은 그곳에 사흘을 머물렀는데, 즐거움이 평상시와 같았다.'를 통해 양생이 환상의 공간인 '개령동'의 집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개령동 집은 이미 죽은 존재인 여인이 사는 세계로, 환상적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작품에서는 이곳이 현실과 차이가 있는 세계임을 '이곳의 사흘은 인간 세상의 삼 년과 같습니다.'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④ '한밤중에 말소리가 낭랑하게 들렸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엳들으려 하면 갑자기 그 말이 끊어졌다.'를 통해 여인과 양생이 함께 있는 휘장 안의 공간은 현실계에 존재하면서도 양생을 제외한 현실계의 인물들이 엿보거나 엿들을 수 없는 삶과 죽음의 영역 사이의 제삼의 공간임을 알 수 있다.
⑤ 산자인 양생과 죽은자인 여인의 사랑은 전쟁으로 인한 욕망(사랑)의 좌절을 환상적 상상력을 통해 해소하는 것으로, 전쟁의 폭력성을 고발하면서 이로 인한 결여와 상실을 메우는 것이다.

24. 외적 증거를 바탕으로 한 작품 감상

정답 ③

'폐허를 가질 용기'와 '무책임을 가질 용기'는 비인간적인 경쟁으로 인한 현대 사회의 인간 소외의 상황을 드러내는 것이다. 현대 사회의 삶의 조건이 인간의 인간다움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는 태도만이 인간을 인간답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현대 사회가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폐허를 가질 용기'와 '무책임을 가질 용기'가 현대 사회의 인간 소외 현상의 원인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다.

- ① '백칠십이 일 동안' 깨지 않고 계속 잠을 자는 '토포'는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으로, 현실을 뒤집는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② '토포'라는 비현실적 경험을 통해 허씨는 현실 세계에서의 실패와 좌절을 치료받는다.
④ 전기가 발명되고 거대 도시인 '매머드 도시'가 등장하면서 아무도 깊은 잠을 자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대목은 '매머드 도시'가 현대인을 불면으로 이끌고 있는 비인간적인 사회임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자본주의가 가져온 불안이 현대인의 삶을 비인간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⑤ '그래서 우리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늘 불안한 겁니다. 반대로 원시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영적인 존재였죠.'를 통해 작가는 원시인과 대비하여 현대인의 삶의 조건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5.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

정답 ⑤

"토포에 빠지려면 왕창 망가져서 모든 게 폐허가 되거나, 아니면 나는 모르겠으니 배 짜라 이렇게 배짱 좋게 무책임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는 돼야 하죠. 이것저것 걱정하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라는 허씨의 말에 대해, '나'는 '그 말이 맞는지도 모른다. 폐허를 가질 용기도, 무책임을 가질 용기도 없어서 우리는 항상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도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지도 모른다.'라고 말하며 현대인의 삶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 ① '양생이 그 말을 여인의 부모에게 알리자, 여인의 부모가 시험해 보려고 같이 밥을 먹게 하였다. 그랬더니 오직 수저 놀리는 소리만 들렸는데, 인간이 식사하는 것과 한가지였다. 그제야 여인의 부모가 놀라 탄식하면서, 양생에게 권하여 휘장 옆에서 같이 잠자게 하였다.'를 통해 여인의 부모가 양생의 말을 의심하다가 시험을 해 본 연후에 믿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여인은 양생을 다시 만난 것에 대해 기쁨을 드러내고 있지만, 부모와 만난 것에 대해 기쁨을 나타내는 부분은 없다.
③ '인간 세상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여인의 은근한 정에 마음이 끌려, 다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를 통해 양생이 처음에는 개령동 집의 세간이 인간 세상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여인에게 약간의 거리감을 가졌지만, 이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④ '기술력, 가격 둘 다에서 참패였죠.'를 통해 허씨가 자신의 실패를 남의 탓이 아닌,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6.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⑤

(다)는 '나'가 토포에 빠졌다가 깨어난 허씨를 만나 그 구체적인 상황을 묻고 대답을 들으면서 전개된다.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된 '나'와 허씨의 문답을 통해

토포가 무엇인지, 토포가 일어나기 전후 상황이 어떠한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 ① 허씨가 토포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나'의 물음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현재 사건의 원인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사건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며, 현재 사건이 화제의 중심이 아니라 과거 사건인 허씨의 '토포'가 화제의 중심이다.
② 허씨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관념적 서술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제시된 장면에서는 줄곧 '나'와 허씨의 문답이 진행되고 있어 공간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허씨의 답변 중에 허씨가 산장에 간 대목은 있지만 이것이 새로운 갈등을 조성하고 있는 것 역시 아니다.
④ 서술자의 내면 의식은 허씨의 말에 동조하는 부분에만 극히 일부만 나타나며 대부분 문답 형식만으로 드러나 있다. 또한 허씨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나타나지 않는다.

[27~32] (현대 시·현대 극)

(가) 기형도, 「출린 사람」

이 시는 사회자, 권력자, 대중들을 등장시켜 권력자의 기만적 통치술과 함께 이성적 비판 능력을 상실한 현대인의 맹목적 태도를 비판한 작품이다. 전체 22행으로 구성된 이 시는 권력에 빌붙어 아첨을 일삼는 사람들을 사회자의 형상을 통해 보여 주고, 그런 무리들을 앞세워 교묘한 방식으로 통치하는 권력자의 모습을 보여 준다. 이어서 권력의 기만을 꿰뚫어 보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인물을 등장시키지만, 그런 비판적 목소리가 어떻게 대중의 광기에 의해 무시되고 짓밟히는가를 보여 줌으로써 현대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나) 이강백, 「알」

표면적인 이야기의 이면에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배치하는 알레고리적 수법을 활용한 작품으로 정치적 후진국에서 일어나는 쿠데타의 과정을 보여 주는 작품이다. 즉 독재 권력(박물관장), 피지배자(시민 가, 나, 다, 마, 바), 근거 없는 사회적 위기감(알), 무지한 믿음(시민 라) 등을 상징하는 알레고리적 장치를 활용하여 주제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의 주제는 일차적으로 쿠데타를 통한 정권 탈취의 과정과 독재가 유지되는 정치적 매커니즘에 대한 풍자이다. 여기에 또 다른 이면의 주제가 함께 놓이는데, 시민 라를 통해 보이는 '불의에 맞서는 인간의 품성과 신념'이다. 하지만 결국 시민 라가 밝혀낸 '진실'은 하찮은 것이었고, 시민 라가 그 진실과 목숨을 맞바꾼 셈이 되었다. 이 작품이 가진 세계관과 시대 전망은 그래서 어둡고 회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27. 시상 전개 및 표현 방식의 이해

정답 ④

(가)에서 화자는 자신의 주관을 배제하고 시적 상황을 담당하게 관찰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화자와 청자가 대화하는 방식은 활용되고 있지 않다.

- ① 사회자의 말 등을 인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② 화자가 자신의 정서나 생각을 노출시키지 않고 시적 상황을 관찰하여 전달하고 있다.
③ '-다'라는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어조의 통일성을 형성하고 있다.
⑤ '이분의 슬픔은 이글거리는 빛이었다' 등의 은유적 표현을 통해 '그분'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28. 대상의 비교 이해

정답 ④

㉔는 현존하는 존재이며(㉑), 사회자를 비롯한 사람들의 맹신 속에 이상화된 존재이다. 반면에 ㉓는 이상적 존재이지만 아직 앞에서 부화되지 않은, 현존하지 않는 존재이다.

㉑ ㉔는 사람들이 맹신하는 존재이며 ㉑ 역시 사람들로부터 추앙받을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㉔, ㉓는 모두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㉑ ㉔는 권력의 이상화의 대상으로, 부정적 존재이다. 긍정적 속성은 찾아볼 수 없다.

㉑ ㉔는 권력의 이상화라는 현실의 문제의 대상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29. 외적 준거를 통한 작품 감상

정답 ⑤

알이 공룡알이라고 믿는 것은 박물관장의 말을 믿는 것으로, 그의 권력을 수용하는 태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룡알을 믿을 수 없다는 '시민 라'의 주장은 권력을 수용하는 모습이 아니라 권력을 비판하는 모습에 해당한다.

① '사내들'과 '여인들'은 강제가 아니라 스스로 '그분'에게 순종하고 있다.

② '신'과 '유령'은 현실에 존재할 수 없으므로 '누군가'의 질문은 신격화된 '그분'의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③ '공룡'은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이므로, 이것이 앞에서 나올 수 있다는 '박물관장'의 주장은 공포를 조성하는 지배층의 속성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④ '진정한 불안은 공룡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와 권리가 쓸모없어졌다는 데' 있다는 '시민 라'의 주장은 비판적 이성이 마비된 채 권력을 따르는 현실을 비판한 말이다.

30. 등장인물의 말하기 방식 이해

정답 ①

'시민 가'는 같은 말이 되풀이되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지만 명확한 자신의 의견을 갖고 있지 않는 인물이다. 따라서 '시민 가'가 '시민 나'의 의견에 반박하여 논쟁의 종단을 요구하는 대목은 제시되고 있지 않으므로 ①은 적절하지 않다.

② '시민 나'의 지혜에 찬탄을 금하지 못하겠다는 '시민 가'의 말은 반어적 수법으로 상대방을 비꼬는 발언이다.

③ '시민 가'와 '시민 나'는 알이 '공룡'인지, '임금님'인지 따지는 쟁점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④ '시민 다'와 '시민 라'는 모두 '박물관장'의 말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⑤ '시민 다'와 '시민 라'의 주장의 근거는 박물관장의 말이다. 하지만 박물관장의 말이 신빙성이 없어 논쟁은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31.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한 희곡의 특성 파악

정답 ①

㉑은 태양이 떠오르면서 알과 시민들을 점점 밝게 비추는 장면이다. 무대 상연을 할 때 태양은 보통 조명으로 구현되므로 태양이 조금씩 떠오른다는 것은 조명의 빛을 활용하여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㉑ ㉒은 배우가 관객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군중에게 하는 말이고,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지도 않았다.

㉑ ㉒에 제시된 공룡을 흉내 내는 동작은 과장된 연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것이 극적 긴장감을 완화하지는 않는다. 공룡 이야기로 인해 긴장감은 높아진다.

㉑ 방백은 관객은 들지만 다른 배우는 들지 못하는 대사이다. ㉑은 방백에 해당하지 않는다.

㉑ ㉒은 알이라는 소품을 이용한 행동이지만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2. 어휘를 통한 작품의 비교 이해

정답 ⑤

(가)의 '군중들의 아우성'은 이성을 회복하려는 의지가 담기지 않은 목소리이다. 또한 ㉑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짓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군중들의 아우성'은 ㉑에 의해 세뇌당한 사람들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다.

① '군중들의 아우성'은 비판적 의식을 통해 깨우친 목소리가 아니다.

② '군중들의 아우성'은 권력에 어쩔 수 없이 따르는 목소리가 아니라 권력에 순종하는 목소리이다.

③ '군중들의 아우성'은 자신의 신념을 담은 목소리가 아니므로 '혀'를 통해 자유롭게 발언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라고 할 수 없다.

④ ㉑은 위대한 임금님을 맞이하기 위한 선왕의 희생을 의미한다. '군중들의 아우성'은 권력층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아니다.

[33~36] (인문)

「시즈위크의 직관주의 윤리학」

이 글은 시즈위크의 직관주의 윤리학에 대해 그 이론의 성립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시즈위크는 먼저 윤리학의 방법 중 이성의 직관에 의해 도덕을 판단하는 직관주의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이 직관주의를 세 가지로 나눈 후 철학적 직관주의로 나아갔다. 그는 이 단계에서 정의, 사려, 박애의 자명한 원리를 설정하고 이 속에 포함된 궁극적 선에 대해 논의하였다. 시즈위크는 궁극적 선을 보편적 행복과 동일시했으며 이를 인간 행위의 공통된 목적으로 채택함으로써 인간 행위를 체계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결국 시즈위크는 공리주의가 최상의 제1원리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33. 핵심 정보의 파악

정답 ④

마지막 문단을 보면 시즈위크는 도덕 판단의 제1원리로 공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공리주의는 보편적 행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① 2문단의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을 단순히 직접적 직관만으로 판단함으로써 판단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 결론에 이르는 과정상의 모든 추론을 배제하는 극단적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에서 지각적 직관주의에 일관성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일상적 삶에서 사용하는 도덕 판단의 기준은 상식 도덕이다. 시즈위크는 마지막 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공리주의 원리에 의해 상식 도덕의 규칙들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③ 1문단의 '시즈위크는 도덕 판단에 대해 경험으로부터 독립적일 것을 요구하면서 오직 이성의 직관에 의해서만 도덕적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아 직관주의에 주목했다.'를 통해 시즈위크는 행위의 원칙을 경험이 아닌 이성의 직관을 통해 찾으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⑤ 2문단의 '상식 도덕의 직관이 우리에게 행위 지침을 주기에 비교적 건전하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그는 이 상식 도덕의 직관을 광범위하고 세밀하게 검토한 후, 그것이 체계적인 윤리 이론의 기초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상식 도덕이 왜 옳은지 그 이론적 기반을 밝히고자 하는 철

학적 직관주의로 나아갔다'를 통해 상식 도덕은 체계적 윤리 이론의 기초가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34. 정보 간의 관계 파악

정답 ②

3문단의 '한 개인의 선(행복) 전체를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전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때의 선은 개인이 충동적으로, 일시적으로 욕구하는 선이 아니고 이성적으로 현재의 선과 미래의 선을 비교하여 인생 전체에서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선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를 통해 사려의 원리는 현재의 일시적, 충동적 선이 아닌, 인생 전체와 관련된(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선에 관련된 원리임을 알 수 있다.

① 시즈위크는 도덕 판단의 최종 근거로 '궁극적 선'을 언급하고 있으며, 궁극적 선은 보편적 행복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시즈위크는 정의의 원리가 아니라 박애의 원리를 도덕 판단의 최종 근거와 연관 지은 것을 알 수 있다.

③ 3문단의 '한 개인의 선이 모든 인간의 선 전체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고 하면서 이성적 존재인 인간은 모든 인간의 선 전체를 목적으로 해야지 개인의 선만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인다.'를 통해 시즈위크는 보편적인 선을 개인의 선보다 우선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정의의 원리는 도덕 법칙을 규정하는 형식적 규정으로, 주관성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규정해야 함을 언급한 것이며, 사려의 원리는 개인의 인생 전체의 선과 관련된 것으로 도덕 판단의 객관성과는 관련이 없다.

⑤ 3문단을 보면 정의의 원리는 도덕 법칙의 형식적 규정을 밝힌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정의의 원리가 도덕 원리를 내용적 측면에서 살펴본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35. 논리 전개 과정의 이해

정답 ③

시즈위크는 윤리학의 원칙을 세우는 방법을 찾는 것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그는 도덕 판단에 대해 경험으로부터 독립적일 것을 요구하면서 오직 이성의 직관에 의해서만 도덕적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아 직관주의에 주목했다. ① 이후 직관주의를 지각적 직관주의, 독단적 직관주의, 철학적 직관주의로 나누고 지각적 직관주의는 일관성이 없어 배제하고 독단적 직관주의를 상세히 검토한 후 이는 체계적 윤리 이론의 기초가 되기에는 부족함을 밝혔다. ② 다음으로 시즈위크는 철학적 직관주의를 제시하며 정의, 사려, 박애의 세 원리를 설정한 후 이 원리들에 내재한 궁극적 선에 대해 논의한다. 궁극적 선은 보편적 행복으로 귀결되며 ④ 이에 따라 시즈위크는 공리주의의 원리를 최상의 제1원리로 주장하게 된다. ⑤ 시즈위크는 상식 도덕, 즉 독단적 직관주의가 행위 지침을 주기에 건전하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체계적인 도덕 원칙을 세우기에는 부족하다고 했기에 상식 도덕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도덕의 제1원리를 찾고자 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36. 다른 정보와의 확장 이해

정답 ②

〈보기〉의 (b)에서는 세 가지 원리를 그 자체로 자명하다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지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b)-(1), (2)에서는 사려와 박애의 원리에 대해 재차 진술하고 있다. 정의의 원리에서 내세우는 형평성은 주관성을 배제한 객관적 진술과 관련된 것으로, (b)에서 해당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① 〈보기〉의 (a)에서 언급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의무의 준칙'은 상식 도덕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려'와 '박애'라는 자명한

원리에 종속되어 있다고 제시되었다.

- ③ (b)-(1)의 '모든 유혹적 충동을 억제하고, 자기 자신의 전체적 선을 추구할 것'은 3문단의 '시즈유크는 사려의 원리가 미래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현재의 욕구를 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한다.'와 관련이 있다.
- ④ (b)-(2)의 '자신의 선과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의 선 전체를 추구할 것'은 3문단의 '시즈유크는 어떤 한 개인의 선이 모든 인간의 선 전체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고 하면서 이성적 존재인 인간은 모든 인간의 선 전체를 목적으로 해야지 개인의 선만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와 관련이 있다.
- ⑤ (b)-(2)는 박애의 원리를 말한 것이며, 4문단의 '다른 사람의 행복을 도모하는 사심 없는 충동인 박애의 감정에는 가치 있는 쾌락이 따른다고 하였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7~42] (사회)**

이형규, 「전망 이론」

이 글은 고전 경제학의 기준으로는 비합리적이 라고 여겨지는 선택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전망 이론이라는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전망 이론에 따라 의사 결정의 근거를 효용 함수가 아닌 가치 함수로 해석하면 비합리적 선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후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37. 글의 전개 방식 파악**

**정답** ⑤

- 이 글에서는 고전 경제학의 기준으로 봤을 때 비합리적인 경제 현상을 심리학적으로 해석한 전망 이론을 구체적인 사례를 활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① 고전 경제학의 핵심 이론을 언급하며 글을 시작하기는 하지만, 전망 이론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살피고 있지는 않다.
- ② 전망 이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고전 경제학의 관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비합리적 선택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망 이론을 비판하는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지는 않았다.
- ③ 전망 이론은 고전 경제학의 전통을 이어받지 않았다.
- ④ 경제학과 심리학의 차이점을 대비하지는 않았다.

**38. 세부 정보의 확인**

**정답** ⑤

- 3문단의 '고전 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이 의사 결정을 할 때 비용과 편익을 절대 금액이 아닌 비율로 판단하는 오류를 쉽게 범한다고 여겼다.'를 보면 고전 경제학에서는 인간이 의사 결정을 할 때 비용과 편익을 비율이 아닌 절대 금액으로 측정해야 한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 ① 1문단의 '고전 경제학에서 상정하고 있는 인간은 '경제적 인간'으로, 이기적이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존재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3문단의 '이를 고전 경제학에서는 오류로 판단하였지만 전망 이론에서는 가치 함수 개념으로 접근하여 설명하고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5문단의 '카니먼은 사람들이 확률을 수치 그 자체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가중치를 부여해 해석한다고 보았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4문단의 '가치 함수는 확정된 절대 수치가 아니라 사람들마다 마음속의 준거점을 기준으로 그로부터의 변화에 따라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39.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 파악**

**정답** ④

<보기>의 자료는 원시 수렵 채취 생활에서의 인류가 식량의 획득보다 위험한 상황을 피하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였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인간은 이익(식량의 획득)보다 손실(위험한 상황)을 훨씬 크게 느낀다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① <보기>의 내용은 가치 함수나 효용 함수와는 관련이 없다.
- ② 손실을 회피하는 경향이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것과 연결되지는 않는다.
- ③ <보기>의 내용은 자극이나 민감성 요소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
- ⑤ <보기>의 내용은 준거점이 변화한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40. 자료 해석의 적절성 파악**

**정답** ④

<보기>에서 대각선 45도로 그려진 점선은 실제 확률과 가중치가 반영된 값이 같은 객관적 확률을 나타내고 곡선은 주관적 확률을 나타낸다. A 구간에서는 주관적 확률이 객관적 확률보다 높게 나타나므로 확률에 대해 과대평가를 한다고 볼 수 있고, C 구간에서는 주관적 확률이 객관적 확률보다 낮게 나타나므로 확률에 대해 과소평가를 한다고 볼 수 있다.

- ① A 구간에서는 객관적 확률보다 주관적 확률이 높게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B 지점에서는 객관적 확률과 주관적 확률이 일치한다. 이는 B 지점에서 별다른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확률을 판단했음을 나타낸다.
- ③ C 구간은 주관적 확률이 객관적 확률보다 낮게 나타나는 구간이다. 이 구간에서는 실제 확률이 50%이지만 주관적으로는 부정적 가중치가 적용되어 42.1%의 확률로 판단하는 사례가 나타난다.
- ⑤ A 구간의 시작 지점과 C 구간의 끝 지점에서는 직선과 곡선이 만난다. 즉 객관적 확률과 주관적 확률이 일치하는 지점을 알 수 있다.

**41. 구체적 상황에 적용**

**정답** ③

질문1과 질문2의 경우에서 모두 외적 프레임은 구매해야 하는 표의 값 5만 원이다.(①, ④) 하지만 두 경우에서 내적 프레임은 차이가 있다. 질문1에서는 5만 원을 잃어버린 일을 콘서트 관람하는 비용과 연계하여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콘서트 티켓을 사서 콘서트를 관람하는 데에 들이는 돈이 5만 원이라는 외적 프레임을 따르게 된다. 따라서 표를 사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질문2에서는 티켓을 예매하는 과정에서 콘서트를 보겠다는 생각으로 지출을 하였으니 콘서트를 보는 데 이미 5만 원을 썼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예매한 티켓을 잃어버리고 현장에서 새로 티켓을 구입한다면, 이미 지불한 5만 원에다가 추가로 지출을 하게 된다. 즉 콘서트를 보는 데 들이는 돈이 과하게 많다는 내적 프레임을 설정하기 때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한 사람이 많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42. 어휘의 이해와 활용**

**정답** ⑤

'설정'은 '새로 만들어 정해 둠.'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쓰레기 소각장과 같은 시설물을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어색한 말이다. '설정'이 아니라 '설치'(베풀어서 둠.)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 ① 상정(어떤 정황을 가정적으로 생각하여 단정함.)의 용례로 적절하다.
- ② 입증(어떤 증거 따위를 내세워 증명함.)의 용례로 적절하다.
- ③ 주저(머뭇거리며 망설임.)의 용례로 적절하다.
- ④ 부여(사람에게 권리·명예·임무 따위를 지니도록 해 주거나, 사물이나 일에 가치·의의 따위를 붙여 줌.)의 용례로 적절하다.

**[43~45] (고전 시가)**

성대중, 「갑민가」

이 가사는 조선 시대 후기 백성들의 비참한 삶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이다. 대화체로 구성된 작품으로, 갑산 사람이 자신의 집안 내력을 이야기하며 전개된다. 갑산 사람은 부역을 감당할 수 없는 처지로 세간살이를 모두 팔아 관아에 바치지만 탐관오리의 가혹한 행위로 인해 아내마저 잃고 집은 폐가가 되었다. 그는 왕의 은택이 미치지 못함을 한탄하며 북청부사의 선정을 기대하며 그곳으로 도망친다고 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끝맺는다.

**43. 시상 전개 방식 파악**

**정답** ④

이 작품은 군역을 짊어지게 된 상황과 이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겪는 고통 등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여 군역으로 인해 비참하게 살아가는 당시 사람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 ① '팔구 월 고추바람'과 같은 어휘를 통해 계절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계절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② '백두산', '분계강', '싸리', '잎갈나무' 등과 같은 자연물을 언급하며 '돈피산행'의 장면을 제시하고 있으나, 자연의 풍광에 대한 감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③ 시적 화자의 처지와 정서만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뿐, 다양한 사람의 외양과 감정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 ⑤ 특정 장소의 풍물을 소개하고 있지 않다.

**44.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 ②

화자의 집안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도망쳤지만 화자는 '집안의 제사' 때문에 도망치지 않고 세금을 모두 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즉 '집안의 제사'는 화자의 집안사람들이 도망치게 된 이유가 아니라 화자가 도망치지 못한 이유에 해당한다.

- ① 화자는 자신이 '원수의 모해'로 인해 군사로 강등되는 바람에 군역을 채워야 했다고 하였다.
- ③ 화자는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삼 캐러 입산'하고 '돈피산행'을 하지만 이를 통해 세금을 마련하지는 못한다.
- ④ 화자는 세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송장과도 같은 '흔비백산 반 주검'이 된다. 화자가 겪은 고통을 짐작할 수 있다.
- ⑤ 화자는 세간 살림을 팔아 돈을 마련하였으나, 돈피 외에는 신역을 받지 말라는 '우리 사또 분부'에 의해 돈으로는 신역을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여기에서 지배층의 횡포를 엿볼 수 있다.

**45. 구절에 나타난 표현 방식 파악**

**정답** ②

㉠에서는 '석송인들 당할쓰냐'와 같은 의문형 진술을 사용하여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군역이 지나치게 많다는 심리적 부담을 드러내고 있다.

- ① ㉡에서는 '차츰차츰'이라는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었으나 문제를 해결한 기쁨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③ ㉢에서는 '발', '발가락'이라는 신체를 지칭하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으며, '열 개의 발가락이 간 곳 없네'라는 표현을 통해 동상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에서는 '성화같은 관가 분부'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군역을 독촉하는 관가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에서는 '참새' 또한 화자처럼 슬피 운다고 말하며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고 있다.